

도서관 가는 길

GYEONGNAM
LIBRARY
MAGAZINE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우리



CONTENTS



4 들어가는말

주제 선정 이유

6 칼럼

서혜란 관장(국립중앙도서관)

심너을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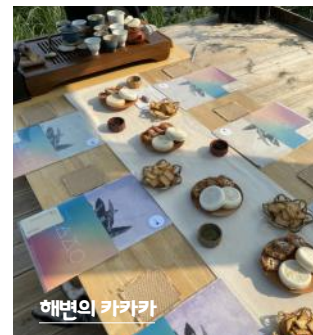
9 도서관이 만난 사람

해변의 카카카(남해 청년 크리에이티브그룹)

주선경 대표(주책방)

16 사서추천도서

어린이·청소년·일반 대상 추천도서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꿈이랑
도서관



향교작은
도서관



소리작은
도서관



책사랑
내서마을도서관

20 도서관이 가는 길

<한 도시 한 책 읽기> 소개

이색 독서공간 소개

-가야산독서당 정글북(합천)

-꿈이랑도서관(통영)

작은도서관 유망기

-향교작은도서관(밀양)

-소리작은도서관(김해)

-책사랑내서마을도서관(창원)

비대면 서비스 우수 사례

34 도서관 소식/행사

새롭게 만나는 우리 도서관

우리도서관 소식

지금 우리도서관에서는,

44 글마당

사서, 자원봉사자, 이용자 수기

53 공공도서관 목록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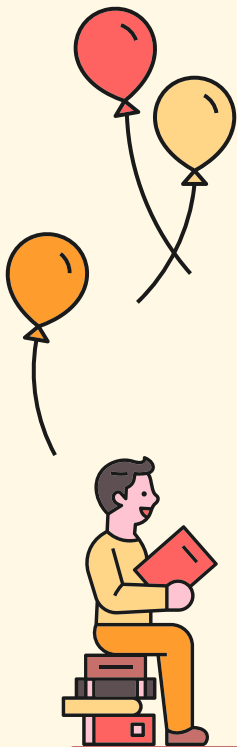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우리”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려 합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비정상이라 여겼던 일들은 새로운 정상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도서관 문을 닫았던 술한 날들을 지나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쓰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도서관을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더딘 것 같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낯설고 때때로 외로울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소멸의 위협 속에서 매일을 건디는 곳들처럼 우리도 견뎌내야 할까요?
결국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처럼 끝까지 버텨내기만 해야 할까요?

그러기엔 우리의 이야기는 너무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을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오래된 도서관의 이야기는 그 내용과 모습을 바꾸어가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이번 「도서관 가는 길」에서는 또 다른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시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단지 변화할 뿐이니깐요.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일상을 위해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나아갈 뿐이니깐요.





칼럼. 1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다.

서해란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약력

- 신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 한국비블리아학회 회장
- 제7대 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회장
-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 現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2001년, 미국인은 물론이고 온 세계 사람들을 경악과 공포에 빠트린 9.11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나는 미국을 방문했었다. 그야말로 살벌한 공황을 빠져나와 들어선 로스엔젤레스(LA) 시내에는 대형 성조기로 외벽을 온통 둘러싼 건물들, 성조기를 몇 개씩 꽂는 것도 모자라 이슬람을 저주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달리는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국 어느 지역보다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도시의 확 달라진 풍경을 맞닥뜨렸던 그때의 충격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정부는 그해 10월 테러 행위의 차단과 방지를 명분으로 도감청과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자법(Patriot Act)'을 발효시켰다. 이 법에 근거해서 부시 미국대통령은 도서관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잠재적 테러 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자료열람이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는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대한 대응지침을 작성하여 전국의 도서관에 배포하고, 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법원 청원에 서명하는 등 적극적 반대 활동을 펼쳤다. 도서관은 온갖 주제에 걸쳐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편견 없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시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결국 2015년 5월에 논란이 되던 독소조항이 폐지되자 미국도서관협회 회장이 환영성명을 내기도 했다. 미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기록들이 아카이빙이 되어있어서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이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만약 우리 한국의 도서관 공동체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아마도 오랜 세월 검열 같은 국가권력의 간섭에 대항하기보다는 '중립을 지키는 도서관'이라는 핑계 뒤에 안주해온 관성 그대로 현실에 순응했을 거라고 자조하곤 했다. 그런데 요즘 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둘러싼 시비가 잦아지고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을 접하면서, 새삼스럽게 게으른 연구자였던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서관에 관련된 여러 모순 앞에서 침묵하는 도서관 공동체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만 봤을 뿐,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도서관과 사서전문직의 역할에 대하여 이론적 성찰이나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는가? 독재 권력의 탄압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도를 넘어서서 사회구성원들의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사방팔방에서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의 자율성에 도전해 오는 지금, 피상적인 강단의 언어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상복 교수께서 정년퇴임에 즈음해 저서를 출판했다며 얼마 전 내게 건네준 『진보 도서관학 운동: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한국도서관협회, 2021)은 이런 내 고민에 화답하는 듯했다. 단숨에 읽어 내려간 이 책은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사회적책임원탁(Social Responsibilities Round Table, SRRT)을 중심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미국 도서관공동체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분석과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쓴 책이지만 이념과 종교 갈등, 표현의 자유, 성소수자나 노숙자 같은 소외계층의 포용 문제가 더 이상 건너 놓이지 않게 된 우리 사회의 도서관 공동체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내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과 참여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셰라(J. S. Shera)의 책 『The Foundation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Becker and Hayes, 1972)과의 만남이다. 아마존서점도 없던 그 옛날, 대학원생으로서만 꽤 부담되는 비용을 치루고 미국서점에서 어렵게 구입한 묵직한 책을 밀줄 그어가며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새롭다. 아직까지도 한국어 번역본이 나오지 않은 이 책을 다시 펼쳐 봐야겠다.



언급된 도서
- 이상복, 『진보 도서관학 운동: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한국도서관협회, 2021)



칼럼. 2

텍스트는 죽지 않아요

심너울

작가

텍스트 형식으로 된 이야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좀더 압축적으로 말하자면, 소설가입니다. 단편과 장편 모두 씁니다. 이런 말을 하면 특별히 무례하거나 아니면 좀 지나치게 취한 사람이 묻기도 합니다. “그 일로 먹고 살만 한가요?” 다행히도 그러저럭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제가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것이 대단히 신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는 강력한 콘텐츠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콘텐츠는 흘러넘칠 정도로 많아서, 우리는 결코 세상의 콘텐츠를 ‘다’ 소비할 수 없습니다. FOX Business에 의하면 2020년 7월 20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 약 4천 편의 영화가 업로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지간한 시네필이 아닌 이상에야 평생 동안 4천 편은 커녕 1천 편의 영화도 보기 힘들 겁니다. 넷플릭스 대표는 그들의 경쟁 상대가 바로 잠이라고 말했죠.

영화나 게임 같은 매체의 전달력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여가 시간에 독서보다는 저 둘을 더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시청각적 자극(게임의 경우는 상호작용 가능성까지)과 조화된 이야기는 그야말로 완전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왜, 게임 중독은 사회 문제지만 독서 중독은 찾기 힘들잡습니까?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는 텍스트로 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변방에서 있는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하게요! 전 이게 이 세상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일어나지 않을 일 같냐면, 모든 실수의 집합에서 아무 수나 뽑았는데 자연수를 얻은 느낌이에요. 오랫동안 의문을 품고 살았지요.

중학생 때 독서가 작가와 독자의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죠. 그때는 “아무리 교과서라지만 어떻게 이런 말을



약력 : 2019년 <장적>으로 데뷔했고 두 권의 단편집과 한 권의 장편을 출판했다. 풍자적이고 시니컬한 느낌의 SF 소설을 쓰고 있다.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출판을 해 보니까 웬걸,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니다. 독자들은 제 이야기 속에서 제가 결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지점을 곧잘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의 장면을 텍스트로 변환할 때, 제 심상은 가혹하게 뭉개지고 추상화됩니다. 제가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따라 묘사하는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읽는 사람이 마음 속에 그리는 장면은 제가 본 영화의 장면과 몹시 다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읽은 사람도 사람들은 취향과 경험에 따라 제각기 다른 심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저는 독자들의 심상 속에서, 제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야말로, 현대적인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서사예술의 시대에도 우리가 텍스트로 쓰인 이야기를 아직도 즐기는 이유인 듯 합니다. 문학은 가장 창조적인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는 서사예술입니다. 제가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매체가 나오지 않는 이상, 텍스트는 죽지 않을 듯 합니다. 글로 된 이야기를 찾아 읽는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추천도서

윌 스토, 『이야기의 탄생』(흐름출판, 2020)
(도서 표지 이미지 첨부)



도서관이 만난 사람. 01

“사라지는
모든 이야기에
전하는 안부”

해변의 카카카



지난 10월 정부는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다. 경남은 11곳으로 전국에서 4번째였다. 내일의 추측이 아닌 오늘의 생활이 되어버린 ‘지방소멸’ 앞에서 ‘잘 살아간다는 건 잘 사라질 줄 알아야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시선으로 지역을 읽어내는 이들을 만나고 왔다.

1. 해변의 카카카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2018년 3월에 남해로 이주를 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친구가 다큐멘터리 감독이었고, 마침 영화 제작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남해로 내려가서 여행이나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고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남해로 몇 번이나 여행을 왔는데 따뜻하고 좋았어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 아니었는데 17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그런데 남해에 내려오니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쨌든 다큐멘터리를 찍어야 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남해 곳곳을 다녀보기도 하고 함께 다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하면서 ‘남해에 집을 구해서 한 번 살아볼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2018년 2월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해서 3월에 제가 제일 먼저 오게 됐어요.



해변의 카카카

처음에는 와서 6~7개월 정도 놀기만 했어요. 그러다 이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거죠. 그렇게 시작된 게 식당이었어요. 식당 이름이 '카카카'였구요. 카레를 팔았어요.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인원수에 맞게 팔면 되지 않을까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금방 접었는데도 남해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카카카'로 부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를 카카카로 아니까 이 이름을 계속 써야하지 않을까하다가 그때 살았던 집이 해변에 있어서 '해변의 카카카'로 정해졌어요. 식당을 접고 2018년 10월부터 해변의 카카카로 본격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2.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 6명을 인터뷰한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진, 문학 작품이나 칼럼들을 추가해서 무크지로 다시 제작해 클라우드 펀딩도 하고, 이후에 정식 출판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원으로 <남해무인도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방 도시 소멸이라는 어떤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 싶었고,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상태의 섬에 대해 상상을 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영화제로 풀어나가고 싶었습니다. 3일 동안 12편의 영화를, 포럼과 공연도 넣고 진행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2020년부터는 규모를 좀 줄여서 고전영화상영회 <공실극장>을 운영했습니다.

소멸, 무인도에 이어서 '빈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공실극장>으로 지었습니다. 2편의 고전영화를 상영했는데 요즘 영화를 보는 재미와는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첫날에 'Sing in the Rain'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틀었는데 비가 왔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오셔서 영화를 보신니까 우산도 나눠드리고 했는데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보시더라고요. 비를 맞으면서 함께 영화를 보던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다른 영화는 '김약국의 딸들'이었는데 관객 중에 한 분이 박경리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영화가 끝나고 이야기를 더 나누기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무력무력>은 지역살이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오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함께 모이는 게 생각보다 즐거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8명의 창작자들과 함께 6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올해는 조금 짧게 6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3.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은 '지방 소멸'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해에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게 남해는 그냥 바다였어요. '남해'라는 지명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오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남해에 오니까 '지방 소멸'이 지역 내 화두였어요. 당시 함께 지내던 사회학도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그 대안에 관한 책들도 읽게 되면서 '지방 소멸'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들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남해가 좋아서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붐벼요. 우리집은 계속 붐비고 시끄럽고 정신없고, 가끔씩은 도시보다 더 피곤한 것 같은데 지금 이곳은 사람들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저희에게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담론이 우리에게 효용이 없는 거죠. 우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역의 인구가 작년보다 이만큼 줄었다.’ ‘연령대가 불균형을 이루고 노령화가 되고 있다.’ 등의 공공기관이나 학자들이 말하는 지방 소멸과 그 대안들이 어떤 개개인들의 이야기를, 미시적인 이야기들을 소실시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숫자와 데이터로 말하는 지방 소멸은 우리의 이야기를, 혹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면 숫자 하나, 두 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하나, 이야기 두 개가 소멸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은 담아내고 싶었어요.

사라져 가는 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게 첫 출발이었던 것 같고, 인터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비주얼 인사이트’라는 섹션을 두고 각 호마다 주제를 정해서 사진, 칼럼, 수필, 시 등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물론 지역이 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의 기록이지만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하는 낙관적인 태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4. 말씀해주셨던 기획들이 모두 ‘소멸’을 중심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나 방향이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남해’다 보니까 남해의 화두를, ‘카카카’라는 팀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만의 시선 혹은 관점을 녹여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이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들 창작 활동을 하다보니까, 누가 했던 이야기나 행동들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고 그 결과물이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이네요.

다른 기획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작자들이 무언

가를 해나가는 과정이 뻔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왔어요. 여기가 옛날 분위기가 나고, 정취도 있고 사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높으신 편이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정체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대로 멈춘 것 같은 시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생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지금의 어른들이 어렸을 때 봤던 영화, 혹은 그 전에 만들어진 영화를 이곳에서 상영하면 지역의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간들을 감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공실극장을 진행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신선하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콘텐츠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5.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내년 3월이면 이 집도 계약이 끝납니다. 남해에 4년 동안 산거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직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어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는 해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의 3호도 발간하고 싶고요. 각자의 창작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콘텐츠들의 맥락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지속하고 싶습니다.

6. 『도서관 가는 길』 독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2년 전에 사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 때 사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그런 자료들이 계속 쌓이는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꼭 책과는 상관없더라도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사람들이 즐기는 방법을 도서관 쪽에서도 제안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소개

하성민, 『소금물』

(해변의 카카카, 텀블벅 진행 중)

『소금물』은 5편의 길고 짧은 이야기가 엮여있는 희곡집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주했던 장소를 추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중요했던, 앞으로도 중요한 그 장소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이 만난 사람. 02

“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주책방



주책방 대표
주선경



2018년 「도서관 가는 길」 통권 41호에는 독립출판물 전문 서점 '주책방'이 소개되었다. 언젠가부터 책방지기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책'들을 선보였던 주책방의 SNS 피드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책방지기의 추천 도서, 운영하는 행사 소식과 함께 책이 아닌 다른 것들도 함께 올라왔다. '동네서점'으로 주책방을 정의한 입간판에는 생소한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1.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주선경입니다. 주책방은 2019년 6월에 시작되었어요. 문학 서적과 독립출판물이 중심인 작은 동네 서점입니다. 최근에는 출판사와 제로웨이스트¹⁾ 샵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주책방의 SNS에서 재밌는 표현을 봤어요.

‘주책방의 김밥천국화’라고. 처음 서점을 시작하셨을 때보다 메뉴가 다양해졌어요.

책방이 자리를 잡으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출판사였어요. 여기 경남, 특히 창원에는 서점도 많지 않지만 출판사도 많이 없었거든요. 우리 지역 작가나 지역민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도 했어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출판사를 열긴 했어요. 책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언제든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언제 서점 문을 닫을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빨리 정해서 시작부터 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첫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책방의 첫 책은 Garami(가라미) 작가의 『미소의 흔적』입니다. 우리 지역을 색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초록’을 담은 ‘마산’을 담았어요. 마산이 주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산의 색을 초록으로 그려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진해와 창원까지 색을 담아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오뉴이북앤샵(창원 봉곡동)에서 원화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11월에는 화이트래빗(창원 오동동)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비건, 미니멀라이프, 제로웨이스트를 다루는 책들이 많이 읽혔어요. 그래서 결국 비건을 시작하게 됐어요. 엄격한 비건은 아니구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건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제로웨이스트샵을 열게 된



게기도 제가 비건을 지향하게 된 것과 같아요. 책방을 운영하면서 굿즈 같은 것을 계속 만들었는데요. 언젠가부터 무엇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샵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주변의 반응을 살피고자 작년 연말 굿즈로 대나무 칫솔을 드렸어요. 다행히 반응들이 호의적이었고, 올해 5월부터 제로웨이스트샵을 열게 되었습니다.

3.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한민 작가의 『아무튼, 비건』, 보선 작가의 『나의 비거니즘 만화』, 신지혜 작가의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입니다.

특히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는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도 변화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생분해되는 대나무 칫솔이나 플라스틱 용기가 남지 않는 고체 치약을 쓰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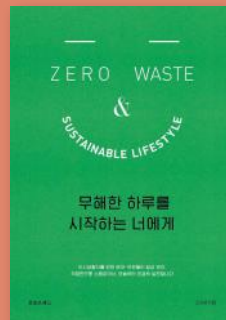
책방 안에 원래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공간이 조금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원에는 제로웨이스트샵이 많이 없었고요. 공간은 비어있고, 제로웨이스트샵은 하고 싶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1)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원칙이다. 제품들이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바다에 쓰레기를 보내지 않는 것이 목표이다.



Garami, 『미소의 흔적』

마산에서 태어난 작가에게 고향의 색은 녹색이다. 이 책을 통해 어머니의 흔적으로 기억하려고 한다.
"누군가 어루만진 오래된 얼굴 꽃 가득 기억할 것이다. 당신의 포근했던 미소 가득"



4. 주변 반응은 어때요.

책방을 열고 약 2년 동안 했던 인터뷰만큼 제로웨이스트샵을 열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요즘 화두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리필스테이션이나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파는 곳이 많이 없었으니까 검색해서 많이 오시기도 하고, 우리 가게에서 파는 제품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기에는 또 탄소배출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러 가게로 오셔서 구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폭이 좁은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사람만 읽는 것처럼, 제로웨이스트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호응이 있는 것 같고, 널리 알려진 개념이 아니기도 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을 운영을 할 때보다 SNS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5. 한 공간 안에 전혀 다른 두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일단 거래처가 많이 생겼어요. 거래처가 들고 재고 관리할 게 많이 늘어나서 힘들긴 합니다.

특히 어떤 업체에서 어떤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할지 고민을 많이 해요. 어쨌든 이 일은 생활 속의 플라스틱을 줄여보려고 시작한 일이니까 여기에 맞게 운영하고 싶은거죠.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하고, 리필스테이션을 도입하지만 많은 물품들을 팔고 싶지 않았어요. '대체'하기 위함이지, '소비'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품이 왜 이렇게 없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필요한 제품들이 아니면 최소한으로 구비하려고 합니다.



6. 처음 책방을 시작하셨을 때와 비교했을 때, 공간구성이 달라진 것처럼 추구하는 바도 달라졌을까요.

계속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 책방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책방에서 출판사를 하고, 제로웨이스트샵을 하는 게 생뚱맞은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제로웨이스트샵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서 제가 먼저 한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을 신경쓰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플라스틱을 줄이고 싶어서 제로웨이스트샵을 시작했고,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팔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책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책방 대신 출판사와 제로웨이스트샵만 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인거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눈치 보지 않고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변화하게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7. 앞으로의 주책방 방향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올해 몸이 좀 안좋아져서 잠시 책방 문을 닫기도 했었어요. 다행히 올해를 넘겨 2022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기획 있을 때 하고 싶습니다.

먼저 출판사로서 목표는 책 한 권 더 만드는 거예요. 책방으로서는 독립출판물을 늘리고 싶어요. 기성출판물을 지금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대신에 좀 더 빛나고 신선한 독립출판물들을 많이 찾아서 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독립출판물방도 새로 꾸몄어요. 그리고 큐레이션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책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제가 읽고 팔고 싶은 책들을 선별해서 서점에 놓고 싶어요. 서가에 둔다고 해서 다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거든요. 사람들이 대형서점에 가지 않고 우리책방에 오시는 건 큐레이션된 책을 보러 오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책의 종 수는 줄이되 조금 더 좋은 책, 그 좋음의 기준은 제가 더 잘 소개할 수 있고 좋아하는 책을 파는 것이 책방으로서의 목표입니다.

제로웨이스트샵은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품 하나가 팔릴 때마다 플라스틱 하나 줄었다는 마음으로,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운영하고 싶어요.

8. 주책방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 <1인칭 쓰는자 시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나요.

<1인칭 쓰는 자 시점>은 김달님 작가님이 주제 선정부터 수업 운영까지 도맡아 주셨습니다. 8주 동안 진행되는 호흡이 긴 프로그램이다 보니 참여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열심히 참여해주셨어요. 2주에 한 번, A4 한 장 분량의 글을 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결국 나의 이야기를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유’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올해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지 않고 북토크만 진행했어요. 책방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인데요. 북토크를 진행하는 공간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동네 책방



에서 하는 북토크는 좀 더 작가님들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김초엽 작가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했는데 좋긴 했지만 좀 멀게 느껴졌어요. 주책방에서 하는 북토크를 좋아해 주셨던 이유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올해 두 번의 북토크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북토크를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이왕이면 창원에서 보기 어려운 작가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 싶어요.

9. 마지막으로 『도서관 가는 길』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이제 곧 『미소의 흔적』이 출간되니까 많이들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왕이면 도서관에서도 우리 책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용자분들이 도서관에서 우리 책을 보시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책방을 하면서 출판도 하는 곳이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책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모두 즐겁게 독서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책방지기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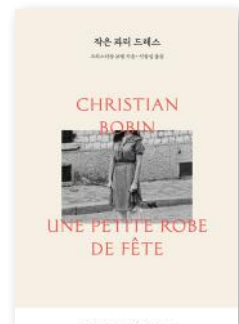
박규리, 『아무튼, 딱따구리』

지속가능 디자인 연구원 박규리 작가님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주책방에 제로웨이스트샵을 함께 운영하면서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하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더욱욱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후변화를 막고 숲과 동물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헤어짐의 슬픔보다는 다시 만나는 기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



크리스티앙 보뱅, 『작은 파티 드레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버리고 대신 몽상의 영과 불길 같은 바람을 들여놓는다고 말하는 크리스티앙 보뱅.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저의 독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책을 읽는 걸까요? 곱씹을수록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내가 책을 읽는 건, 보기 위해서예요. 삶의 반짝이는 고통을, 현실에서 보다 더 잘 보기 위해서예요.”



어린이 추천도서

CHILD



**용기를 내,
비닐장갑!**
유설화

추천 _ 칠암도서관 박희중

겉도 많고 거칠어도 많은 주인공 비닐장갑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작은 용기가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기에서 구하는 이야기. 유년기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용기와 우정의 빛으로 채워주는 귀여운 힐링 그림책이다.



**나무 사이로
계절이 지나가**
김주임

추천 _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박순미

나뭇잎 한 장을 따라 숲길을 걸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도 묵묵히 자라는 나무들을 만나는 이야기. 사람을 닮은 나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어린이들이 자연의 순리를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책이다.



눈물 쓱 스펀지
홍민정

추천 _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김민하

우는 사람을 보면 '울지마, 그만 울어'와 같은 말로 위로할 때가 많다. 이 책은 눈물이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의 산물로 이해하며 눈물이 나면 참지 말고 충분히 울게 기다려주자고 이야기한다. 눈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과 감정을 주스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진짜 내 소원
이선미

추천 _ 진영한빛도서관 길경덕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지니에게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게 엄마와 아빠를 위한 소원을 발게 되고, 스스로를 위한 소원은 없냐고 되묻는 지니에게 일 년의 시간을 달라고 한다. 주변의 기대에 매몰되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유쾌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림책이다.



**누가 사자의
방에
들어왔지?**
아드리앵 파를랑주

추천 _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박찬향

사자의 방을 배경으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림책으로, 방의 주인인 맹수 사자조차도 실재없는 두려움에 떠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사자가 숨어있는 담요 위에서 마음 편하게 잠드는 작지만 천하태평인 생쥐 모습을 통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낸 감정임을 알려준다.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욱 추천하는 그림책.



책은 싫어요
스테파니 게리노

추천 _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윤현지

책이 싫은 아이는 어떻게 해야 책을 읽을까? 재미있는 이야기? 이 책은 어렵게도 이야기에 대한 책이 아니다. 하지만 소재가 색다르다. 소리내서 크게 읽게 하거나, 책을 빙글빙글 읽게 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책에 대한 흥미를 돋우게 한다. 책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아이에게 추천한다.



엄마도감
권정민

추천 _ 남해화전도서관 최하얀

아이와 함께 태어난 엄마를 아이의 시선으로 관찰한 그림책.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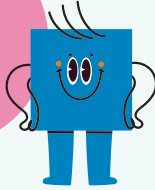
강남 사장님
이지음

추천 _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양유선

고양이 사장님 유투버라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재미있게 교훈과 감동을 주는 책이다.

청소년
추천도서

YOUTH



**나는 나를
돌봅니다**
박진영

추천 _ 칠암도서관 김동형

타인의 실수나 실패에는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은 유독 엄격한 청소년에게 이 책은 자기 자비를 통해 내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게끔 해 준다.



그림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추천 _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박순미

내면에 숨겨진 자아에 관한 기묘한 이야기를 담은 안데르센의 숨겨진 명작에 어둠을 직시하는 작가 고정순이 그림을 그린 책이다. 피하고 싶은 그림자를 대면한 후 진정한 빛을 마주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다.



**핸드폰 없는
2주일**

플로리안 부센도르프

추천 _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최은경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집필한 소설로, 2주일 동안 '핸드폰 없이 살기' 프로젝트에 참가한 중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리고 있다. 스마트폰에 빠져 온라인상의 관계에 의존하고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등의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핸드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일상을 대비시킴으로써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핸드폰에 의존적이었는지 제감하게 한다.



**차라리
결석을 할까?**
이명량

추천 _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이상위

낮선 학교, 낯선 교실, 낯선 친구들, 매시간 선생님이 달라지는 낯선 중학교 생활은 조동하고 때와는 모든 것이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어 느끼는 어려움이 고인인 친구들에게 현정이의 솔기로운 중학생 생활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와 힘찬 응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보통의 노을
이희영

추천 _ 남해화전도서관 최하얀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예기치 못한 일을 마주하고 흔들리는 열여덟 최노을의 이야기이다. 세상이 정한 '보통'과 '평균'에 대해 고민하며,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작품이다.



필경사 바틀비
허먼 멜빌

추천 _ 진영한빛도서관 길경덕

미국 경제의 중심에 있던 월 스트리트를 배경으로, 타협적인 화자(변호사)와 비타협적인 주인공(바틀비)을 대비시키고,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라는 짧은 한 마디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살아온 이들의 존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대의 합리성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보건교사
안은영**
정세랑

추천 _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윤현지

한마디로 sf라는 장르문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설이라 볼 수 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켈리를 볼 수 있는 보건교사 안은영의 일대기이자 현대sf로마극이라는 독특한 조합을 재미있고 독특하게 풀어낸 소설이다. 드라마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접했지만 소설로도 읽어보는 건 어떨까?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추천 _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양유선

한 편의 동화 같은, 한 편의 판타지 영화 같은 소설이다. 신비롭고 따뜻하고 이야기로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며, 독특한 상상력에 빠져 책을 몰입해서 읽을 수 있다.

일반 추천도서

ADULT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를
구할거야**
김준

추천 _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최은경

어렵게만 느껴지는 생명과학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본 책이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생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유용함을 주는지, 그리고 그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구하는 생명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명과학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명작을
읽는 기술**
박경서

추천 _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최은경

문학의 의미와 재미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문학 읽기 안내서이다. 고전 작품은 50년, 100년 이상 살아남으면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고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문학 사조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훑고 작품의 역사적 맥락과 작가의 일화 등을 정리해 고전 작품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 명작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백조와 박쥐
히가시노 게이고

추천 _ 진영한빛도서관 길경덕

일본의 유명 추리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데뷔 35주년 기념작으로, 33년의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 두 개의 살인 사건과 이에 얽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진실'이 갖는 무게와 '침묵'의 대가를 작가 특유의 필력으로 잘 표현한 수작이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마쓰이에 미사시

추천 _ 진영한빛도서관 길경덕

제64회 요미우리문학상 수상작. 인간을 격려하고 삶을 위한 건축을 추구하는 노건축가와 그의 궤적을 따르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로, '건축'이 갖는 의미를 일본 '국립현대미술관'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잘 녹여낸 내용이 인상적이다.



**우리말 어감
사전**
안상순

추천 _ 칠암도서관 김혜민

상상과 공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얼핏 들으면 비슷한 단어, 둘의 차이를 막상 설명하자니 뜬구름 잡는 생각만 머릿속에 동동 떠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우리말 어감 사전은 단어 간의 실낱같은 뉘앙스를 끄집어내어 둘의 어감 차이를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다. 단어 사이 교집합을 배제한 그 미세한 차이를 마음껏 감상해보자.



**넌 위한
문화예술**
오대우, 이지현, 이정우

추천 _ 칠암도서관 김혜민

비록 예술이 주관과 감상의 영역이지만, 유명한 작품들을 볼 때 이 작품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넌 위한 문화예술에서는 어디서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유명한 작품들을 꺼내어 작품의 어떤 부분이 주목을 받았으며, 화가가 추구하고 있는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려준다. 예술을 소수가 '향유'하기보다 다수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서문처럼 예술입문자가 접하기에 좋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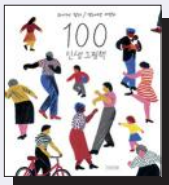




**어른답게
말합니다**
강원국

추천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박경은

“어른의 말하기는 어떤 것일까?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른이 갖춰야 할 태도, 말의 품격, 매끄러운 대화의 비밀 등 총 7장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나 말은 하지만 잘 말하며 살고 있는지, 나이에 맞게 내 말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른답게 행동하는 품격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100 인생
그림책**
하이케 팔러 저

추천 남해화전도서관 최하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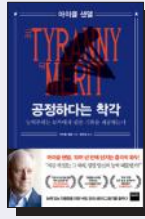
0세부터 100세까지 인생 100컷으로 담아낸 그림책이다. 그 나이에 마주하는 인생을 짧은 구절로 담담하게 담아낸 이 책은 전 연령의 사람들이 그동안의 삶을 위로받을 수도 있고, 공감할 수 있다.



도시의 얼굴들
허정도

추천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양유선

이 책은 16명 인물이 남긴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도시공간을 이야기해준다. 근대현사 속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여, 새로운 느낌으로 도시의 공간을 볼 수 있다.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추천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윤현지

대학서열에 비롯한 능력주의에 정확한 통계와 사례들을 이용해 이를 비판하는 책이다. 미국을 비판한 책이나 한국도 만만치않은 대학서열만능주의인지라 우리의 이야기 같이 읽을 수 있다. 능력주의의 허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분더카머
윤경희

추천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박순미

빠르게 변화하며 확장되는 온·오프라인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불안이나 소외감으로 혼란을 겪곤 한다. 살아가며 자신만의 단단한 시선과 취향을 가지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을 만들어 가기에 좋은 책이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매트 헤이그 저

추천 남해화전도서관 최하얀

“삶과 죽음 사이에는 도서관이 있다.” 죽기로 결심한 주인공이 삶과 죽음 사이의 미스터리한 공간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보며, 가장 완벽한 삶을 찾는 이야기이다. 이 책은 주인공 노라의 신비한 경험을 통해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현재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준다.



**두 번째
지구에는 없다**
타일러 라쉬

추천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양유선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이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환경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도서관이 가는 길 . 01

한 도시 한 책 읽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책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인 1998년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
워싱턴도서센터(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의 낸시 펄(Nancy Pearl) 사서는 생각했다.
“만약 시애틀 온 시민이 책 한 권을 같이 읽는다면...(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라면 말이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이, 한 사서의 작은 생각이 지금의
‘한 도시 한 책 읽기(One Book One City)’의 시작이 되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한 지역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책을 읽고 동일한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복돋게 하는 지역사회 대중 독서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널리 확산되어 금세기 공공도서관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독서운동의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운동이 처음 시작된 미국에서는 의회도서관이 웹사이트(read.gov/cfb)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책 읽기 운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미국은 51개 주 중 50개 주가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Canada Reads'라는 이름으로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부분의 한 책 읽기 운동이 지역의 공공도서관

관이 주체가 되어 전개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라디오 방송국인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가 주체가 되어 운동을 이끈다. 그러한 연유로 미국에서의 한 책 읽기 운동이 '읽기'에 치중되어 있다면 캐나다에서의 그것은 '읽기'와 '듣기'가 결합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책을 선정하는 과정도 매우 색다르다. 한 권이 아닌 다섯 권의 책이 그 해에 선정 후보도서가 되는데 토론을 거쳐 최종 한 권이 선택되기까지의 과정을 라디오, TV 프로그램, 팟 캐스트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방송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토론과 투표를 거쳐 올해는 캐나다인 소설가 조슈아 화이트헤드(Joshua Whitehead)의 소설《Jonny Appleseed》가 선정되었다. 캐나다의 한 책 읽기 운동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cbc.ca/books/canadarea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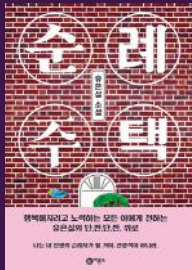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충남 서산에서 가장 먼저 이 운동이 시작된다. 그 후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도시가 증가하여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북, 경남 등 많은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자치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대표적인 지역사회 독서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남의 지역대표도서관인 경남대표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책 읽기 운동을 소개한다.

경남에서는 김해시가 2007년 이 운동을 시작하여 올해 15주년을 맞았으며, 창원시와 경상남도(경남대표도서관)가 2019년부터 이 운동에 참여하여 올해로 3주년이 되었다. 경남대표도서관은 2019년에는 '이어라 경남의 책', 2020년부터는 '함께 읽어요!! 경남의 책'이라는 사업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온 경남도민이 함께 같은 책을 읽음으로써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범도민 독서문화를 확산하여 궁극적으로는 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도민의 참여와 관심일 것이다. 어떤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을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선정 과정을 짧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도민의 생각과 도민 가까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도민과 도내 도서관 사서로부터 함께 같이 읽을 책을 추천받는다. 두 번째, 경남대표도서관 사서들과 자료선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책을 직접 읽고 도서관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후보도서관을 선정한다. 세 번째,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의사를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선호도 조사 점수와 위원회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도서관을 선정하게 된다.



2021 올해의 책(경남) 선정



유은실
『순례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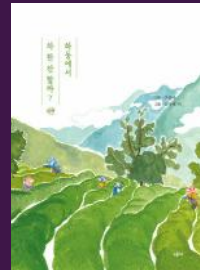
남은유
『햇살 속으로 직진』



방미진
『13일의 단톡방』



신양진
『녹색인간』



김나래의
『하동에서 차 한 잔 할까?』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2019년에는 5개 분야, 총 7권의 도서를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계층별(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로 분야를 나누어 선정하는 것과는 달리 소통/배려, 인문/철학, 역사/문화 등 소설뿐만 아니라 역사, 과학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선정하여 다방면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3개 분야, 총 5권의 도서를 선정하였는데 소설/인문/어린이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도서들이 선정되었다. 특히 소설 분야 선정 도서인 소설가 장강명의 《산 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작가의 풍자와 비판을 생동감 있고 현실적으로 그려내었다. 인문 분야 선정 도서인 최태성의 《역사의 쓸모》 또한 역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현대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는 점에서 그 선정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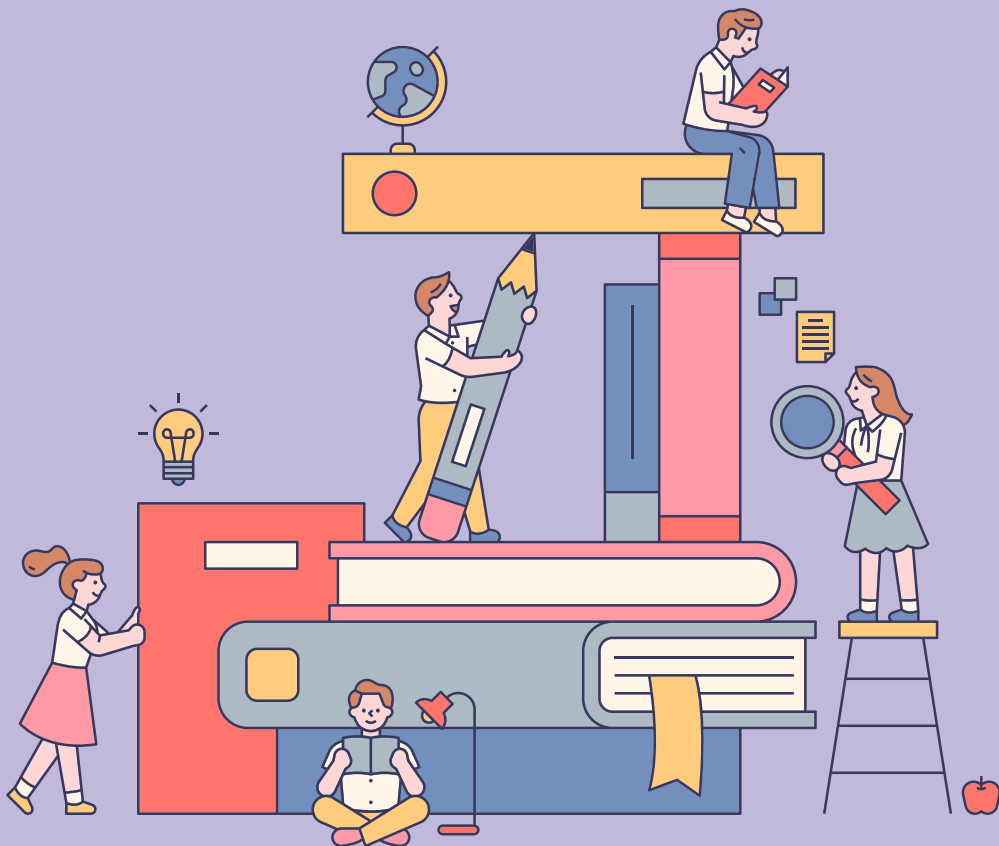
2021년 올해 가장 주목할 점은 경남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자 지역 분야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3개 분야 총 5권의 도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 분야 책으로는 하동에 있는 지역 출판사 '구름마'에서 기획하고, 9명의 저자가 직접 취재를 하고 그린《하동에서 차 한 잔 할까?》가 선정되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동의 차에 관한 내용으로, 하동의 차 문화와 역사 그리고 차와 함께 살아가는 하동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한편, 어린이 분야 선정 도서인 2권의 책은 미디어 폭력 그리고 미래의 식량 대란에 대한 내용으로,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로울뿐더러 주제 의식 또한 함양하고 있어 선정 가치가 높았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그리고 '함께 읽어요!! 경남의 책', 함께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며 전혀 소통하지 않았던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매개체가 책이라는 점에서 이 운동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가정, 학교, 대학, 일터... 어디에서든 나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 상상만으로도 더욱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저물어가는 한 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하고 떠올랐다면 함께 읽는 2021 경남의 책을 적극 권하고 싶다.

도서관이 가는 길 . 02

이색 독서 공간

책은 어디서 읽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
 꽤 오랫동안 우리는 마땅히 책이 있어야 하는 곳에서,
 눈으로 혹은 입으로 소리내어 책을 읽기만 하였다.
 책보다 재밌고 즐거운 것이 너무 많아서 책을 읽을 새가 없다는
 고리타분한 핑계 대신 재밌고 즐거운 것들과 함께 책을 읽을 수는 없을까.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맛과 멋을 찾아낼 수는 없을까.



돌아보면 어디에나 책이 있다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80년 전 가야산 매안리에 어느 소학교로 개교하여 2019년 2월까지 총 5,11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송산초등학교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야 했다. 합천 안에서도 외진 곳에 속하지만 대신 수려한 자연 경관을 살려 책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바로 자연과 역사, 독서와 힐링. 4색의 어울림이 이루어지는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이다.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이라는 명칭은 합천을 대표하는 '가야산'과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건립한 전문 도서관 구기구인 '독서당', 마음을 정(精)화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공간이자, 책(Book)이 가득한 상상놀이터라는 의미를 가진 '정글북'으로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또한 정글에서 살아가는 소년의 성장을 담은 러디어드 키플링의 소설명과도 같은 '정글북'을 모티브로 하여 구성된 이 공간은 전국 최초의 북캠프 체험시설이다. 올해로 개관 1년을 맞은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은 크게 '독서당'과 '송산 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서당은 정글을 형상화한 그림책 특화 공간인 '모글리의 숲'과 '정글은', 인쇄, 활판체험 등의 활동이 가능한 '책 짓는 방', 작가의 서재를 형상화한 '작가방', 다양한 분야의 만화도서를 즐길 수 있는 '웹툰방', 강연, 공연, 영화상영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인 '정글잼', '정글림' 등으로 이루어져 이곳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놀다가도 책을 읽고, 책을 읽다가도 놀 수 있다.

송산초당은 방갈로와 야영데크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캠프와 연계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북캠프는 경남지역 유·초·중·고교생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주말에만, 방학기간 동안은 주중·주말 동안 운영된다. 1박2일로 진행되는 북캠프는 문화공연과 자유체험프로그램, 가족힐링독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독서당 내 각 자료실에 비치된 워크북을 활용하는 자유체험프로그램은 AR핑거스토리, 종이나비액자 만들기, 스케치미디어 월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어린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도서관으로만 운영되었다면 지리적 특성이 약점이 되었겠지만 캠프장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리적 특성이 최고의 강점이 되어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자연 속에서 하루 종일 독서와 놀이, 체험과 공연이 한데 어우러져 24시간이 모자라는 하루를 보내게 한다. 이는 아이들로 하여금 책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어 아이들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도 자신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제공한다. 캠프를 하러 온 이들은 책 읽는 가족이 되어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을 나서게 될 것이다.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대전길 18-6

전화: 055)933-1611

홈페이지: <http://junglebook.gne.go.kr>



읽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꿈이랑 도서관

꿈이랑도서관은 통영시장공약사업으로 1997년 개관하여 노후화된 통영시립산양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통영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미각도서관으로 지난 5월 개관하였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통영의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계승이 필요하며, 통영 내 어린이만을 위한 체험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꿈이랑도서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랑'은 물결처럼 줄줄이 오목하고 볼록하게 이루는 모양을 의미한다. 물결치듯 연결되는 것이 마치 하나하나의 꿈들이 모여 물결이 되는 모습을 연상시켜 '꿈이랑'이라 하여 <어린이미각도서관 명칭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되었다. '꿈이랑도서관'은 통영의 맛과 멋, 그리고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을 표현하고 있다.

지어진 지 20년도 더 된 통영시립산양도서관은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영 안에서도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도심에 위치한 다른 시립도서관보다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다. 리모델링되면서 전국 최초의 '미각'도서관이 된 꿈이랑도서관은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체험공간 조성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통영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자 한다.

미각특화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맛있는 서재'와 다양한 형태의 책과 교구를 이용할 수 있는 유아체험실인 '새싹의 책방', 통영의 맛을 전시하는 '통영을 봄', 요리 체험과 실습이 가능한 쿠킹스튜디오

오 '동백의 주방',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각이랑 꿈고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갖 맛으로 꾸며진 꿈이랑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미각 특화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지구촌 요리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는 통영 향토음식의 역사와 종류, 특징에 대해 배우고 실습하는 '통영음식문화 이야기'(현재 중강)를 비롯하여 '눈과 입이 즐거운 디저트 여행', '카페브런치 집에서 즐기기' 등을 운영한다. 11월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체험프로그램과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 연계 미각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꿈이랑도서관은 다채로운 미각체험프로그램과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행사를 기획하여 기존의 도서관 기능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며, 지식문화정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닌 맛보고 즐기며, 이윽고 물결처럼 밀려오는 감동으로 우리는 다시 꿈이랑으로 발걸음하게 될 것이다.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둔전길 155

전화 : 055)650-2500

홈페이지 : <http://www.tongyeonglib.or.kr/>



도서관이 가는 길 . 03

작은도서관 유랑기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립된 소규모의 생활친화적인 독서 및 문화공간.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하며 주민의 독서습관을 신장시키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¹⁾. 바로 작은도서관이다. 공공도서관을 대체하는 관종이 아니며,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지난 호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¹⁾ 남영준 외,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06)

1 밀양향교작은도서관



향교는 지방의 인재를 양성하고 민풍과 예속을 순화하면서 유교 성현들을 기리는 교육기관이다. 밀양시는 현재 재향만 이뤄지는 밀양향교(경상남도 시도유형문화재 제214호)의 공간을 활용하여 2017년 전국 최초로 밀양향교작은도서관을 설립하였다.

보물 제2095호로도 등재된 명륜당의 일부를 어린이실로, 서재는 일반자료실, 풍화루는 독서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단체 견학을 통해 향교 이야기, 공수법, 배례법, 공중 도덕, 다도, 손 유희 활동, 스토리텔링과 독후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옛 선조들의 면학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향교에서 책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밀양시 밀양향교 3길 19(교동) 055-356-6051



2

소리작은도서관

2010년 개관한 소리작은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으로 설립되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촉각도서, 오디오북 등을 포함하여 일반도서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전용 스크린 리더 설치 컴퓨터도 함께 비치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도서 검색과 음성도서파일 다운로드 등이 가능한 PC를 별도로 구비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정보자료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타악기를 활용하는 민요수업인 <소리로 배우는 우리 가락>,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도서낭독프로그램 <책 소리 세상 소리>, 경남점자정보도서관 협력프로그램인 시각장애인 문예창작수업 <듣는 책, 느끼는 책> 등이 있다. 특히 <듣는 책, 느끼는 책> 수업은 문집 『한 지팡이의 노래』를 발간하며, 올해는 청년예술가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시를 시각화하는 예술연계활동 「시:시각화」展을 진행한다.



전시(프로젝트)명 : 시시각화 (詩視覺和)

기간 : 2021년 11월 4일~11월 13일

장소 : 김해서부문화센터 스페이스 가울

한 명, 한 명 이용자의 이름을 부르며 맞이하고, 이용자의 삶이 담긴 글을 옮겨 적으며 함께 성장하는 소리는 작을지 모르나 마음은 큰 도서관일 것이다.

김해시 가락로94번길 7
(동상동 및 중앙상점가 고객센터 2층)
055-314-3657



3

책사랑회내서마을도서관

1988년 6월 마산 남성동에서 출발한 책사랑도서관은 1999년 창원(대방마을도서관)과 마산(합성2동)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합성2동의 좁은 공간에 있던 책사랑도서관은 2003년 5월 코오롱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새동지를 틈 후, 2005년 11월 1일 호계리 코오롱아파트 주민복지시설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²⁾

코로나19에는 <도서관 1박 2일 캠프>, <도서관 학교>를 내서지역 작은도서관들과 함께 개최해 지역의 독서문화 형성에 힘써온 책사랑회내서마을도서관은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 체험활동 <광려천은 내 친구>부터 마을활동가 양성, 디지털 배움터 <시니어 스마트폰>, 창의독서논술, 청소년 통기타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으며 특히 여름방학에는 1권의 책을 정해서 전시도 보고 퀴즈도 풀 수 있는 <책 속의 보물>을 진행하여 이용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²⁾ 양재한,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과 운동의 방향」 (2008)



오래전 소개지의 인사말처럼 책사랑회내서마을도서관은 다양한 자료구비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다하며 지역 공동체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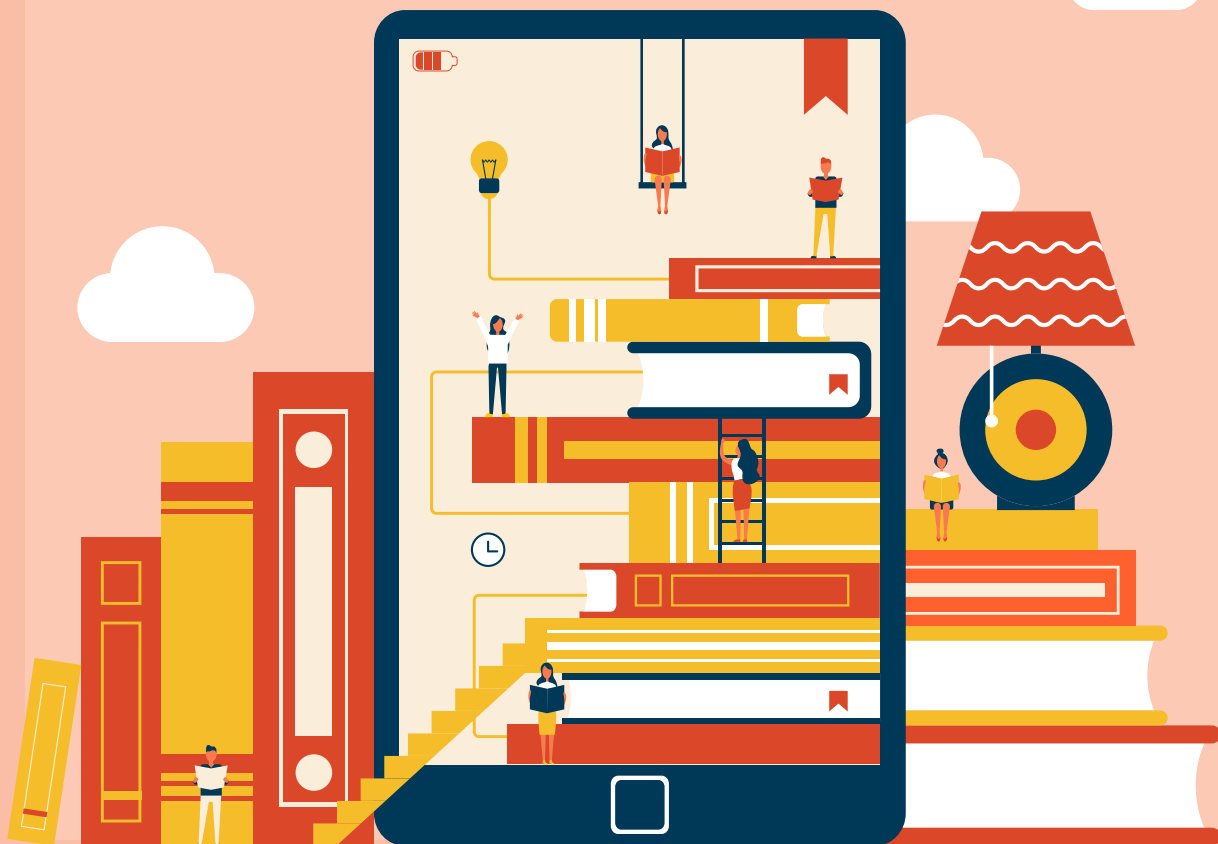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361-3
코오롱아파트 관리동3층
055-297-4724



도서관이 가는 길 . 04

비대면 서비스 우수사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마주하는 얼굴들 사이에 낀 모니터가 자리 잡아도
 마음은 넘치도록 전해지고 의미는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2년 만에 배웠다.
 도서관을 여닫기 바빴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 우리는
 만나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마스크 없이도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시절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계속되었으면 하는 비대면 서비스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칠암도서관

딜리버러리(Delibrary)
Library(도서관)+Delivery(배달)을
합친 단어

담북(book)담북 마음배송 딜리버러리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팬데믹 시대에 마음과 감동을 온라인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딩동! 마음이 도착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진행하였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서로에게 추천하는 책과 사연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칠암도서관에서는 좋은 사연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였다. 총 18팀(36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에게는 상대에게 추천한 도서를 도서관에서 구입하여 전달해주었다.



이번에 만나볼 김해 시민은?

2.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새 공책 즐겨, 헌 공책 다오」 필사공책 교환 행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로감이 쌓인 지역주민을 위해 책과 삶을 연결할 수 있는 독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상적 삶의 영위를 위한 지적(知的)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꼭꼭” 마음으로 읽고 “꼭꼭” 손으로 써보는 필사를 통해 독서에 대한 관심과 인문학 감성을 확산하고자 하는 이 행사는 거창군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되어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소설, 시 등을 필사한 노트를 가져오면 새 노트로 교환해준다.



3.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아무 때나 온라인 강좌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유아·어린이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김해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아무 때나 온라인 강좌 : 랜선 동화극장」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영상은 동화구연 전문강사가 용판 동화 영상을 촬영하고 나면 담당 사서가 10분 내외로 영상을 편집 후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현재 총 11편의 동영상에 제공되고 있으며 2,714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김해도서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강좌 개설 및 제공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열린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

고조곤한 낭독회

김해 대표 시인 김효경이 사회를 맡고 경남시민들을 초대하여 함께 시를 읽고 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지난 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7회를 진행하였으며 1,9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서가 직접 배경음악을 선곡하고 유튜브 송출을 맡아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시와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잠시나마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한 마음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5.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2021 통(通)하는 인문학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일상을 살아가는 도민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도민의 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유도하는 지역 인문학센터로서의 역할 수행하기 위하여 3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12회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398명이 참여하였다. 뉴노멀 시대를 맞는 도민의 변화된 삶에 필요한 일상, 경제, 여행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강연 플랫폼(Zoom)을 통한 지속적인 인문학 강연으로 도내 인문 정신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6. 양산시립중앙도서관

그림책 놀이

원격회의 프로그램(Zoom)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총 6가정이 참여하였으며 함께 그림책을 읽은 소감을 나누고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7.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온라인 독서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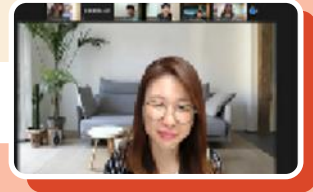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하여 독서 전문 강사의 온라인 강의와 독서토론을 병행한다. 초등 1~3학년(한결), 초등4~6학년(한알), 고등1~2학년(책수다)로 나뉘어서 운영되는 독서동아리는 zoom을 활용하여 웹 보드지를 통해 미리 생각해온 질문과 의견을 교환한다. 초등부는 학년별 추천도서 및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선정도서를, 고등부는 독서동아리 선정도서로 독서토론을 진행한다. 창원도서관은 이외에도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함께 책 읽고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온라인 토요 책동산'도 함께 운영 중이다.



8. 화정글샘도서관

온택트(On-Tact) 독서 토론 서비스

'함께 읽기'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독서 동기를 부여하고자 온택트 독서토론 서비스를 운영한다. '열두달 함께 읽기'는 어영수 작가를 멘토로 하여 매월 셋째 주 월요일마다 선정도서를 읽고 토론을 한다. '책수다 독서회'는 김혜경 작가를 이끔이로 하여 매월 넷째 주 화요일마다 진행하며 하브루타 모형을 적용한 비대면 독서토론을 이어간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가생활이 제한된 상황에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다양한 주제 선정 및 깊이 있는 책 읽기를 통해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NEWS



새롭게 만나는 우리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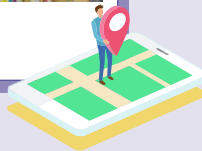
11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공간재구성



10

진주시립서부도서관
공간재구성



7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공간재구성



3

남해화전도서관
확장 건립 예정



12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공간재구성



13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신축 이전, 2022. 7.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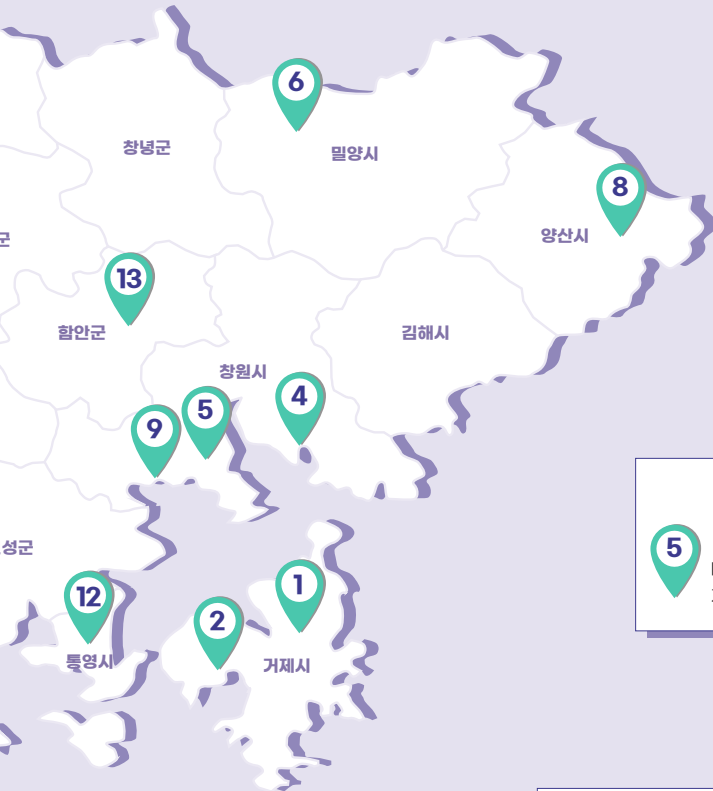
6 밀양시립도서관
재개관 예정(공간재구성)



8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신축 이전



4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공간재구성



9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공간재구성



5 마산회원도서관
재개관 예정, 2022. 1



1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공간재구성



2 거제시립아주도서관
2021. 11. 13 개관

NEWS



우리도서관소식

경남대표도서관

경남의 문화·교육 구심점 역할하는 도서관

11월 부터 작은도서관, 장애인,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자체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며,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중·고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대상 진로 순회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남의 문화·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프로그램과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영상 제작을 하는 '나도 유튜브크리에이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인공지능의 비밀'과 함께 '서여가의 꿈', '청소년을 위한 법' 등 청소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미래를 탐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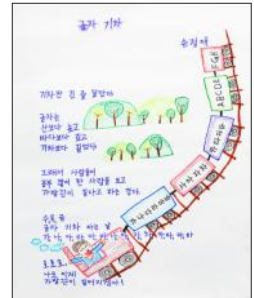
도서관에서 써내려간 치유의 글 『내 삶의 문장』 발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의 <길 위의 인문학: 함께 쓰기>를 총 20차시에 걸쳐 운영한 끝에 완성된 『내 삶의 문장』을 발간하였다. 지난 10월에 열린 출판기념회에서는 글 쓰는 과정을 이끌었던 안상현, 이주언 작가와 14명의 참여자 등이 함께하였으며, 이들의 삶과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난 뜻깊은 결과물의 탄생을 축하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2021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

2021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김해도서관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 손정애(69)씨의 「글자 기차」가 시화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상 수상, 김위수(77)씨의 「내 인생의 자서전」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건강독서챌린지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남해 지역주민들을 위해 건강과 독서를 함께 지원하는 <책과 함께 동네 한 바퀴> 행사를 운영하였다. 걷기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워크온'을 활용하여 걷기 목표를 달성한 후, 도서관 대출 미션을 완료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남해군보건소와 함께 진행하였다. 남해도서관은 지역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민 밀착형 독서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남해화전도서관

책과 함께 똑똑 살림키우기 진행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남해신협과 함께 독서이벤트를 마련했다. 도서관 신규 회원가입(0.1%) 또는 3회 이상 도서대출(0.3%)을 할 경우 정기에탁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 시 우대이율을 적용해주는 행사로 지난 10월부터 오는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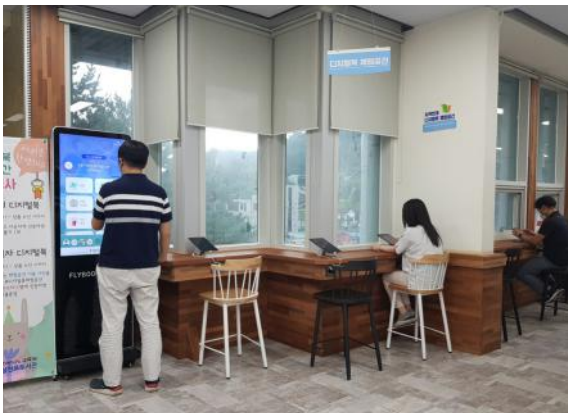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인형극 운영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로 인형극을 통해 독서에 관심을 높이도록 유도하고자 구성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디지털북 체험 공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2021 지역연계 디지털북 체험공간」을 개설하였다. AI가 추천도서를 제공하는 '플라이북' 키오스크와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디지털북·디지털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독서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이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시립중앙도서관

<실버카페> 운영

지난 10월부터 양산시립도서관 내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위한 <실버카페>가 운영을 시작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큰글씨도서 코너> 운영

노안으로 일반 도서를 읽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저시력인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해 큰 글씨로 제작된 도서 코너를 종합자료실에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고령화 도시인 군민 맞춤형 서비스로 편안한 책 읽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큰글씨도서와 돋보기 안경을 비치하고 있으며 <큰글씨책, 지금 만나러 갑니다> 행사를 운영하여 큰글씨도서를 빌리면 인문필사노트를 함께 증정할 계획이다.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책나무', '책키움' 어린이독서회 운영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책나무', '책키움' 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까지는 초등 3~4학년 대상의 '책나무' 독서회만 운영하였으나, 지역 내 초등 고학년부 수요를 고려하여 올해부터 초등 5~6학년 대상의 '책키움' 독서회를 추가로 개설하였다. 전문 강사와 함께 선정 도서를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논리력과 발표력을 향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도서와 독서문화 체험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도 가지고 있다.

NEWS



우리도서관소식

성산도서관

채움과 비움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통한 위로와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창원의 문학을 잇다-우리 동네 문학관 이야기'를 주제로 창원의 문학관을 중심으로 창원 문학의 역사와 문학가들에 대한 강좌와 탐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산도서관 고유의 인문학 프로그램인 '채움과 비움의 성산인문학'을 비롯하여 '시니어 창작교실', '어린이 인문학 독서교실'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우수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산청지리산도서관

산청의 역사를 만나다!

1도서관 1특성화 프로그램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산청박물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산청역사와 관련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전시·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였다. 초등 대상 <산청 역사탐험대>, 성인 대상 <산청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비롯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산청에서 채록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한 『우리 동네 이야기』 전시도 11월에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진동도서관에 무지개 책이 피었습니다!

양방향 전시서거기를 자료실에 설치하여 매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을 가진 표지의 책을 전시한다. 이를 통해 숨겨진 책을 발굴하여 비치하고, 이용자의 독서 욕구 자극과 함께 도서 대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진해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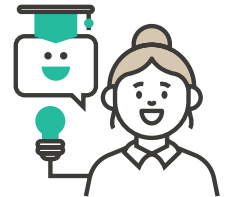
상상나래 창작특강 운영

매월 1회 어린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과학, 예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벽돌을 이용한 거북선 만들기, 지두화로 명화 따라 그리기 등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운영되어 집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체험이 가능하다.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진주역사원정대 운영

1도서관 1특화프로그램으로 진주역사원정대를 운영하여 '진주역사 깊이 알기' 강좌, 유적지 탐방, 진주사랑 퀴즈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작가초청강연 운영

지역민과 함께 책으로 하나되는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우포늪을 활용한 '생태와 환경으로 보는 창녕'을 주제로 지난 10월 23일 이효혜미 박사에게 '습지'와 '수생식물'에 대해 배우고 우리 주변의 습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공공도서관과 지역 서점이 상생하는

<우리 동네 북플레이스> 운영

침체된 지역 서점을 살리고 지역의 독서문화 안착을 위해 9월부터 동네 책방 북큐레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도서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오누이북앤샵, 책방19호실, 청보리책방에서 추천한 도서로 구성되며, '책방지기, 문학을 탐하다', '책방지기, 사색에 잠기다' 등 매월 색다른 주제 도서로 진행된다.

창원시도서관사업소

찾아가는 창원의 책 릴레이 특강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관내 학교에서 2019~2021 창원의 책 선정 및 후보 도서 작가 강연 및 후속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칠암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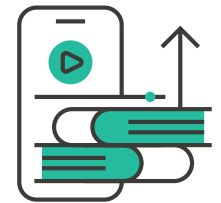
자연家(가)득 온가족 텃밭놀이터 운영

도서관에 있는 옥상정원을 활용하여 가족들이 함께 직접 작물을 심고 거두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생명과 환경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자연家(가)득 온가족 텃밭놀이터>를 준비하였다. 오는 2022년 3월에 운영될 이 행사는 어린이 자녀가 있는 가족(5팀)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경상남도교육청 하남도서관

하남도서관 인증샷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지역의 명소이자 사진 찍기 좋은 즐거운 장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말풍선과 함께 도서관 방문 기념 셀카를 찍을 수 있도록 포토보드를 제작했다.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땡땡! 책배달이 왔어요

코로나19로 도서관 방문이 어렵거나 바쁜 직장인 등 이용에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 무료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경상남도 교육청 합천도서관 소속 통합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NEWS



지금 우리도서관에서는,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6080 어르신 포토자서전 제작 발표회

- 일시 : 21. 11. 16(화)
- 장소 : 한마음도서관 시청각실
- 대상 : 60~80세 어르신
- 주요내용 : 자서전쓰기, 포토자서전 제작프로그램 운영·출간, 전시회 등

『새 공책 줄게, 헌 공책 다오』 필사공책 교환행사

- 기간 : 21. 9. 8. ~ 11. 30.
- 필사분야 : 책, 시, 신문사설 또는 칼럼 중 택일
- 주요내용 : 필사공책(80~100쪽)을 가져오면 새 공책으로 교환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2022 겨울독서교실

- 기간 : 22. 1. 11. ~ 1. 13.
- 참여대상 : 어린이
- 주요내용 : 책 속 주인공에서 편지쓰기, 독후감상 발표하기 등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지역 작가(사서) 북콘서트

- 일시 : 21. 11. 12(금)
- 주요내용 : 고성에서 자라고 도서관에서 꿈을 키운 지역 작가(사서) 북콘서트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김해도서관 인문학교

- 기간 : 21. 12. 14. ~ 12. 18.
- 대상 : 지역주민
- 주요내용 : <다시 보는 삼국지> 강연 및 인문 버스킹 (현악기 연주회 및 전시) 운영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연극아, 놀자

- 기간 : 21. 11. 6. ~ 12. 4(토)
- 대상 : 초등 3~4학년
- 주요내용 : 상상력, 자신감,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연극 놀이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

1318 북덕방

- 기간 : 21. 11. ~ 22. 3.
- 대상 : 청소년
- 주요내용 : 북덕방에 비치된 우체통에 고민을 남겨주면 그에 적합한 도서를 찾아 택배로 대출

내맘대로 북술랭 가이드

- 기간 : 21. 11. ~ 22. 3.
- 대상 : 초등학교
- 주요내용 : 도서관 소장도서 중 20권을 읽은 후 책별점을 부여한 뒤 한 줄 독후감 작성

진영한빛도서관

신화, 인간의 길을 묻다(인문학특강 시즌2)

- 기간 : 21. 9. 27. ~ 11. 8.
- 대상 : 성인
- 주요내용 : 한국, 중국, 북유럽신화 강좌 운영

새 활용, 반려지구를 위한 하루(평생학습강좌)

- 기간 : 21. 11. 13. ~ 12. 4(매주 토)
- 주요내용 : 바다유리로 목걸이 만들기, 양말목으로 티코스터 만들기 등

화정글샘도서관

책수다 독서회

- 기간 : 21. 11. ~ 12월
- 주요내용 : 하브루타 모형을 적용한 비대면 독서토론 운영

21년 시인학교 동시집 전시

- 기간 : 22. 3월 중
- 주요내용 : '시인학교' 운영 결과물(창작 동시집) 전시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연말프로그램 운영

- 기간 : 21. 12. 1. ~ 12. 31.
- 주요내용 : 사랑의 가족 캔들 만들기, 이용자 추천도서 전시 등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작가 초청 강연

- 일시 : 21. 11. 13(토)
- 주요내용 : 웹툰 『오므라이스 켄쎄』 조경규 작가 초청 강연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독서가 즐거운 도.토.리!

- 기간 : 2021. 11. ~ 12월 셋째주 토요일
- 대상 : 유아 및 어린이
- 주요내용 : 월별 주제도서 읽고 강사와 함께 다양한 만들기, 독후활동 체험

노블레스 오블리주 독서 산책

- 기간 : 21. 11. 9. ~ 12. 7.
- 대상 : 관내 기관장 및 지역주민
- 주요내용 : 슬로우 리딩(slow reading)으로 함께하는 비대면 독서토론

밀양시립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 기간 : 22. 3. ~ 6월
- 주요내용 : 그림책놀이지도사 외 15강좌 운영

북스타트 부모교육

- 기간 : 22. 3. ~ 4월
- 대상 : 관내 3~35개월 영유아 및 부모
- 주요내용 : 독서 및 음악활동 등

경상남도교육청 하남도서관

문화공연

- 기간 : 22. 1. 26. ~ 3. 30.(매월 1회)
- 대상 : 보호자 동반 유아·어린이
- 주요내용 : 인형극공연, 샌드아트공연, 매직버블쇼

인문학 프로그램

- 기간 : 21. 11. 2 ~ 22. 3. 31.
- 주요내용 : 맛있는 인문학, 생각하는 인문학 강좌 운영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에코 독서 챌린지

- 기간 : 연중 운영
- 대상 : 초등학교
- 주요내용 : 기후 위기에 관한 책을 읽고 독서활동지 작성하여 제출한 어린이에게 멸종위기동물 응원 팔찌 증정

반짝반짝 나만의 북트리 만들기

- 일시 : 21. 12. 11.(토)
- 대상 : 초등 3~6학년
- 주요내용 : 북폴딩 공예로 3단 북트리 만들기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2022년 책을 읽겠어요!

- 기간 : 21. 12. 1. ~ 12. 31.
- 주요내용 : 2022년 독서 목표를 제출하고 책을 대출한 이용자에게 2022년 달력 증정

2021년 맛있는 마무리

- 기간 : 21. 12. 1. ~ 12. 31.
- 대상 : 유아·어린이 이용자
- 주요내용 : 2021년 행사 중 좋았던 행사를 선택한 종이와 함께 책을 대출하면 과자 증정

경상남도교육청 산청지리산도서관

〈철학으路(로) 여행〉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 일시 : 21. 10. 16.(토)
- 주요내용 :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의 저자, 동양고전의 대가 배병삼 교수 특강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11월엔 도서관으로 가져

- 일시 : 21. 11. 27(토)
- 대상 : 유아(6~7세), 초등학교(1~2학년)
- 주요내용 : 동화구연 및 관련 만들기 독후활동

작가와와의 만남

- 일시 : 21. 11. 13.(토)
- 주요내용 : 박거훈 작가의 집필배경과 작가에게 직접 듣는 책 이야기 등

양산시립서창도서관

〈개관1주년〉서창도서관, 너를 만나 행복해

- 일시 : 21. 11. 5. ~ 11. 30.
- 주요내용 : 함께 만드는 서창도서관(대형 컬러링, 숲 속 친구 소풍날(인형극) 등 운영

「웹툰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 21. 10. 16. ~ 12. 4.(매주 토)
- 운영대상 :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 강사 : 웹툰작가 광동주
- 운영내용 : 릴레이 도서관 웹툰 제작 등

양산시립영어도서관

부산외대와 함께하는 영어교육 특강

- 일시 : 21. 11. 28.(일)
- 운영내용 : '미국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본 영어 교육'을 주제로 강연

양산시립중앙도서관

책독 마음톡

- 기간 : 21. 10. 15. ~ 12. 17.(매주 금)
- 대상 : 시각장애인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통의 장 마련 및 독서프로그램 진행

(경상국립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강좌

- 기간 : 21. 11. 6. ~ 11. 20.
- 주요내용 : 여행과 힐링을 주제로 동·서양 인문철학 강연 진행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책이랑 숨바꼭질

- 기간 : 21. 9. 25. ~ 12. 4.(매주 토)
- 대상 : 유아(4~5세), 보호자
- 주요내용 : 유아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율동, 노래 등 다양한 책놀이 프로그램

오감발달 책놀이

- 기간 : 21. 9. 25. ~ 12. 4.(매주 토)
- 대상 : 유아(6~7세)
- 주요내용 : 유아를 위한 율동,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

진주시립연암도서관

작가초청 특강

- 기간 : 21. 11. ~ 12월(매월 1회)
- 대상 : 중학생 이상 시민
- 주요내용 : '내 삶의 심포지'를 주제로 2개 강연 진행

진주시립어린이전문도서관, 도동어린이도서관

하반기 어린이 문화교실

- 일시 : 21. 11. ~ 12월(총 4차시)
- 대상 : 초등학교
- 주요내용 : 책이랑 놀자, 토탈공예, 과학과 발명 등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청소년독서동아리

- 기간 : 21. 11. ~ 22. 2
- 대상 : 중학생 1~2학년
- 주요내용 : 청소년 권장도서 독서 후 감상 표현 등 독후활동

(가족체험 재활동공예) 친환경 크리스마스 트리

- 일시 : 21. 11. 27.(토)
- 대상 : 어린이 포함 6가족
- 주요내용 :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재활동 공예 활동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겨울독서교실

- 일시 : 22. 1. 18. ~ 1. 21.
- 대상 : 초등 3~4학년
- 주요내용 : 주제 도서를 읽고 다양한 창작 활동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동양철학과 사주명리학

- 일시 : 21. 11. 20.
- 대상 : 청소년
- 주요내용 : 동양고전 노자와 도덕경 등의 주요 내용을 배워 자아성찰의 기회와 삶의 가치관 제고

책나래 독서동아리

- 일시 : 21. 11. 27.
- 주요내용 : '암탉은 파업 중'을 통해 권리를 찾아보고 다른 입장이 되어 보기 등 독서활동 운영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가고파 책놀이

- 기간 : 21. 11. ~ 12월
- 주요내용 : 독서의 달인 한 발짝, 그림책으로 마음여행 등 다수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 맞춤 독서운동

- 기간 : 21. 11. ~ 12월
- 주요내용 : 편안한 책읽기(태아·예비부모), 따독이(유아·동반가족) 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마산회원도서관

겨울도서관에서 즐기는 북강스

- 기간 : 21. 12. 6. ~ 12. 18.
- 장소 : 내서도서관
- 주요내용 : 만들기 체험, 도서 전시, 키트 배부 등

성산도서관

책&가족 행사

- 일시 : 21. 11. ~ 12월
- 장소 : 성산·상남 도서관
- 주요내용 : 책 읽는 가족 선정, 가족 체험 등 가족 단위의 독서진흥행사

다문화 독서문화행사

- 일시 : 21. 11. 1. ~ 11. 31.
- 대상 : 다문화 가족 및 창원시민
- 주요내용 : 다문화 이해를 돕는 만들기, 도서전시, 어린이 다문화 교실 등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50+(신중년)의 품격

- 일시 : 21. 11. 25.(목)
- 대상 : 50세 이상 신중년 50명
- 주요내용 : 안상현 작가와 함께하는 신중년 북토크

의창도서관

하반기 문화교실

- 일시 : 21. 9. 7. ~ 11. 25.
- 장소 : 의창-명곡도서관
- 주요내용 : 책으로 떠나는 세계미술사여행(의창), 스크래치 코딩(명곡) 등 22개 강좌 운영

(문화가 있는 날) 미술과 개그. 수다를 떨다

- 일시 : 21. 11. 28.(일)
- 대상 : 7세~ 초등 저학년
- 주요내용 : 콩트 슬랩스틱 코미디, 참여형 미술 등이 어우러진 코미디 스토리텔링공연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책과 함께 나눔

- 기간 : 2021. 12월 중
- 대상 :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
- 참여방법 : 대면
- 주요내용 : 한 해를 마무리하며 12월 나눔의 달 행사 운영 (과월호 잡지 무료 나눔, 올해의 독서왕, 소망트리 만들기 체험 등)

진해도서관

책사랑 가족사랑

- 일시 : 21. 11. 22. ~ 12. 18.
- 장소 : 진해도서관, 동부도서관
- 주요내용 : 가족체험행사, 도서전시, 올해의 독서왕 선정 등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독서왕, 모여라!

- 일시 : 21. 11. 27.
- 대상 : 초등교과연계 독서프로그램 <도전! 독서왕> 참가자 중 최종단계 통과 어린이
- 주요내용 : 독서연계 체험활동, 독서왕 시상

고전문학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다

- 기간 : 21. 10. 16. ~ 11. 6(매주 토)
- 대상 : 청소년 및 성인
- 주요내용 : 불확실성과 불안의 시대를 고전문학 속 지혜를 통해 성찰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책, 사람을 읽다

- 일시 : 21. 11. 13.(토)
- 주요내용 : 『할매, 밥 됩니까』 저자 노중훈 특강

(1도서관 1특성화) 차의 사계절

- 일시 : 21. 11. 4.(목)
- 장소 : 하동 관내 다원(연우제다)
- 주요내용 : 차에 대한 총론 및 차문화 향유

함안군립칠원도서관

재미있는 영어 미션

- 일시 : 21. 10. 16. ~ 12. 18.
- 대상 : 초등 1~3학년
- 주요내용 : 영어그림책 읽기와 다양한 영어 놀이 활동

사고력 팡팡 뉴스 읽기

- 일시 : 21. 10. 17. ~ 12. 19.
- 대상 : 초등 3~6학년
- 주요내용 : NIE(신문 활용 학습)을 통해 창의력, 논리력, 분석력 향상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집에서 즐기는 우주행성팔찌 만들기

- 기간 : 21. 1. 2. ~ 11. 30.
- 대상 : 어린이 도서대출 회원
- 주요내용 : 어린이 자료실에서 도서를 대출한 어린이에게 '우주행성팔찌' 만들기 자료 증정

돌아온 셀프 북 테이크아웃

- 일시 : 21. 11. 2. ~ 11. 30.
- 대상 : 성인·청소년 도서대출 회원
- 주요내용 : 자가대출반납기로 도서 대출 후 영수증을 응모함에 넣은 회원 중 추첨을 통해 기념품 증정(10명)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인공지능시대의 진로와 인문학

- 일시 : 21. 12. 4.(토)
- 대상 : 청소년 이상 누구나
- 주요내용 : 변화하는 시대의 진로트렌드와 인문학을 연계한 강연 운영

2022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 기간 : 22. 3. ~ 7월
- 주요내용 : 주역 산책, (가족과 함께) 만들기 교실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합천 테마 인문학 산책

- 기간 : 21. 9. ~ 11월
- 대상 : 관내 청소년 이상 누구나
- 주요내용 : 「서양 역사와 문화」 「세계사에서 만나는 리더십」 주제로 강연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우리



글
마
당

마산회원도서관(내서도서관)
박성식(사서)

“인생은 옳은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 라이너 마리아 릴케

”

내 사서 인생의 시작. 그 시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책 한 권이었다. 책 속의 문장을 읽고, 평소 고민해온 어둠이 걷히고 세상이 밝아지는 경험, 그리고 도서관 사서가 되어 ‘내가 경험한 것을 되돌려 주리라’는 다짐. 그렇게 나는 사서가 되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사서가 된 이후에도 모든 것들이 내겐 시작의 연속이었다. 새로운 업무들과 사람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상황들까지. 계속되는 시작들에 맞서 열심히 일했다.

그저 의미 없이 일만 했던 걸까? 그건 아니다. 힘들게 힘쓰는 일을 하고 와서 너무 지칠 때도 웃어주는 아이들만 보면 웃음이 나왔고,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비대면 강의에 대해 만족하실 때도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준비 과정이 더 힘들었던 대면 행사에 기쁘게 참여하시는 이용자들을 보며 또 웃음이 나왔다. 더 많다. 내가 추천해드린 그림책이 너무 맘에 들었다고 하셨던 순간,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대출하신 이용자와의 대화, 매일 아침 신문으로 경제 공부를 하시던 어르신과의 대화, 늘 90도로 인사해주시던 어르신 등.

이렇게 쓰고 보니, 잊지 않았던 것 같다. 시작할 때 했던 내 다짐을.

나의 사서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의 이야기도 계속 해서 시작되고 있다. 나와 도서관 그리고 우리 이야기의 끝이 해피엔딩일 것이라고 믿으며, 다시 시작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권금외(이용자)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않은가?

”

삼랑진의 친구 밀양도서관을 이용하게 된 지도 벌써 4년이다 되었다.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은 2010년 10월에 개관하여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고향, 삼랑진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한 번씩 뵈러 올 때는 가끔씩 도서관에 들리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아들과 함께 살았던 천안에서의 생활을 접고, 아흔을 바라보시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을 즐겨 찾게 되었고, 신문도 읽고 정보도 알게 되면서 나에게 도서관은 사람들과의 약속의 장소가 되었다. 도서관은 삼랑진초등학교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중, 고등학교와 버스정류장, 기차역이 인접해 있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1층에는 디지털실과 어린이실이 한 공간에 있어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정겹게 다니기도 한다. 2층에는 종합자료실과 학습실이 마주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 틈에 있으면 나 자신도 마치 청소년기로 돌아간 듯 착각이 들기도 한다. 3층에는 사무실과 소극장이 있어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 교실과 다양한 인문학 강좌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한다.

2020년 1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도서관 건물이 전체 폐쇄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많이 복귀되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학이시습지불역열호’라는 공자님의 말씀처럼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않은가? 도시에서 생활하다 퇴직을 하고, 때로는 요양 차 삼랑진에 정착하신 분들은 도서관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외부의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인생 후반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참 고마운 곳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길 위의 인문학’ 강좌를 통하여 작가들과 주민들의 소통도 이어주기도 하고, 폐교를 이용한 ‘문학관’과 명소를 탐방하여 역사의 현장에서 강의도 듣고, 여행을 즐기기도 하였다. 암울했던 코로나19 시기에 틈틈이 자서전을 쓰면서,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작은 시집’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소소한 행복을 맛보기도 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에 개설된 ‘힐링 붓글씨’는 현재 중학교 국어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입선하는 기쁨도 가졌다.

농촌에서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도시에 남은 사람들은 부러워한다.

자신의 남은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머지 꿈도 이곳에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개관한 지 11주년 되는 삼랑진 도서관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늘어서 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관장님, 직원,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최혜정(사서)

우리는 이렇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

유례없던 상황이 계속된 2년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 도서관은 휴관과 개관을 반복했고, 사서들은 이용자들의 독서문화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비대면 독서진흥행사, 소규모 작가와의 만남 등 우리 도서관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썼고, 그렇게 1년이 지났다.

1년이면 될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는 결국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도서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힘든 점도 있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니 오히려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도서관 이용이 자유롭게

못한 지금 노후화된 건물을 개·보수한다면 추후 도서관 이용이 자유로울 때 이용자에게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양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전면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미래 자산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독서활동이 가능하도록 1층 어린이자료실 확장하였고, 교양있는 시민들을 위해 2층 종합자료실을 증축했으며, 3층 정기간행물실을 신설하고, 4층 프로그램실 조성으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북카페, 전시실, 공연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밀양 라운지를 5층에 조성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도서관 외관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내실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들을 계획 중이다. 도서관을 방문하며 해맑게 웃을 이용자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그 어두운 시간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정유경(자원봉사자)



겉과 속이 다른 곳! 이곳은 도서관이다.

”

겉과 속이 다른 곳! 이곳은 도서관이다.

‘겉’에서 봤을 때 도서관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읽고 싶은 책들로 가득한 곳이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온종일 책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그런 면에서 책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일하는 사서가 참 부러웠다.

겉만 보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원봉사를 계기로 도서관 ‘속’으로 들어왔다. 도서관 ‘속’은 겉에서 볼 때는 단순히 책이나 DVD를 빌리고 열람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용자들을 위한 소소한 안내(대출·반납 요령, 도서 검색, 회원 가입…)와 다양한 문화 행사·전시(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가 매달 진행되고 있었다.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꿈과 휴식과 즐거움의 순간을 선물해주는 큰일을 조용히 해내는 도서관 근무자들이 더 부러워졌다.

그 많은 소소한 업무를 하는 틈틈이 어떻게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들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달마다 새로운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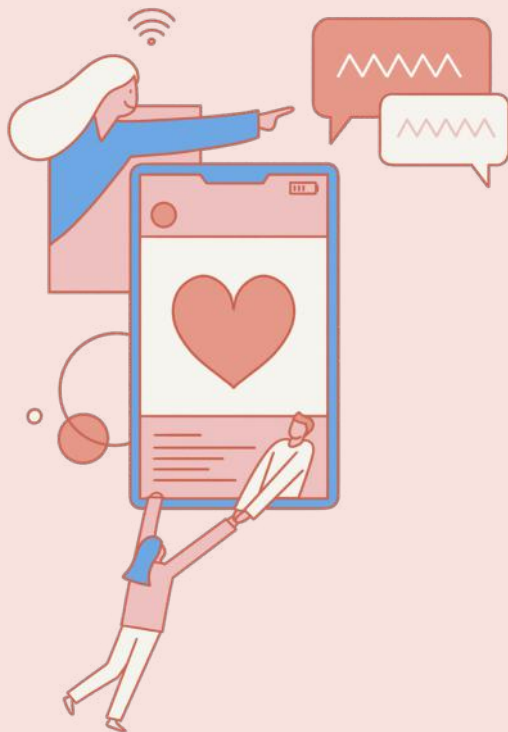
산청도서관에서는 매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달마다 계절, 기념일, 유행에 맞추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달 부담감은 크다. 어떻게 하면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용자의 만족도가 커질까. 책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각 자료실에서 행사를 준비할 때 바쁜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되어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도서관 전체에서 하는 행사도 있지만 아무래도 어린이 자료실 담당이다 보니 어린이 대상 행사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간다. 퀴즈가 너무 어렵지 않은지 상품은 괜찮은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인 만큼 행사가 교훈적인지 고민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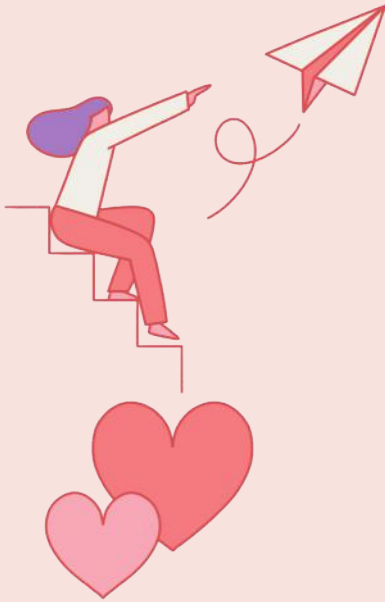
행사에 손이 많이 가서 조금 정신없고 피곤하더라도, 아이들이 재밌다고 해주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마음에 뿌듯함으로 오랫동안 남아서 나도 모르게 다음 달에는 뭐하지? 하고 아이디어를 적어두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이은빈(사서)



행사 참여가 저조할 때는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용자에게 약간의 원망이 들지만, 그만큼 다음 행사에서 좋은 반응이 나올 때의 기쁨이 크다.

발령난 지 1년도 다 지나지 않아 아이디어를 다 쓴 것인가 하는 좌절감이 든 것도 잠시, 이번 달 행사가 특히 많은 호응을 받아 기쁘다. 항상 오는 이용자에게는 항상 새롭고 즐거운 도서관으로 느끼게 만드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도서관에 방문할 작은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



경상남도교육청 산청지리산도서관
정푸른(직원)

이곳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책처럼 느껴진다.



산청지리산도서관이 생길 무렵, 작은 일거리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주말 사서보조로 지원하면서 새로 지어진 도서관에 처음 책을 꽂는 순간부터 지켜보는 영광을 누렸다. 살면서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날이 오다니! 도서관에 머무르며 우리 동네의 더 많은 얼굴들을 알게 됐다. 도서관이 없었다면 이렇게 세대와 직업을 아울러 동네 사람들이 한 공간에 머무는 일이 별로 없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에 관심 많고, 관찰하기 좋아하는 나는 도서관을 이용하며 새롭게 알게 되는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자주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해졌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내게 잊을 수 없는 어린 몇 분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매년 경운기를 타고 오시는 할아버지는 귀가 어두우신지 엄청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한가득 책을 빌리면서도 ‘볼 책이 없다’고 괜히 투정을 부리신다. 그러곤 매년 ‘다음주에 가져다 줘도 되겠냐고 같은 질문을 하신다. 내일 또 오실거면서! 그렇게 사서 선생님들을 당황하게도 하지만 빌려가신 책은 혹여 더러워질까, 망가질까 비닐에, 가방에 2차 포장을 해오시는 할아버지를 보면 웃음이 난다. 항상 부스스한 모습으로 오시는 또 다른 할아버지, 역시 매년 큰소리를 치신다. 괜히 혼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귀가 어두우셔서 꼭 종이에 써서 말씀드려야 한단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어찌나 진지하게 책을 찾고, 열심히 읽으시는지 괜히 입을 삐죽거린 나를 돌이켜보게 된다. 부스스한 모습에 편견을 가진 것도 한참 부끄러웠다. 어떤 할아버지들은 책은 하나도 안 보시고서 소파에 앉아 큰 소리로 한참 수다를 떨고, 통화도 하며 놀다 가신 적도 있다. 목소리를 낮추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런 분들마저도 이웃이니까 내 눈에는 그저 밍지만은 않았다. ‘아,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편하게 쉬어가실 곳이 없는 건 아닐까?’ 하며 얼떨결에 이웃들을 알아가고, 궁금해하고, 공부하게 되는 거였다.

나는 산청지리산도서관을 통해 내 이웃들을 배우고 있다. 사람이 귀한 농촌이라 그런지 더더욱, 이곳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책처럼 느껴진다. 누구든 도서관에 온다는 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는 것이니까, 그런 공기를 느낄 수 있는 도서관이 우리 동네에 생겨서 참~좋다^^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



어느덧 코로나가 우리 삶을 덮친 지도 1년 반이 넘어간다.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며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프로그램을 했다가 말았다가 반복했지만, 어느새 우리는 도서관 그리고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코로나는 우리가 당연히 해왔던 것을 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독서회, 평생학습, 독서 진흥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예전처럼 많은 인원을 모아 복잡하게 강연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강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거리두기 규칙을 지키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소규모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예전처럼 미소 지은 얼굴을 그대로 마주할 수는 없어도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으로 웃으며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황다슬(사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데스크에서 일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지만, 손바닥보다 작은 마스크를 쓴 어린이 친구들이 고사리 손으로 책을 골라 대출해가는 모습을 보며 웃고, 이용자들이 고맙다고 해주는 말 한마디에 보람을 느낀다.

상황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심각해질 때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도서관이 그리고 사서들이 써 내려갈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모두 기대해주길 바란다.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정은주(사서)



‘우리’는 도서관 직원이다.

”

우리에게 2021년은 쏜살같이 지나가버렸다. 도서관 이전으로 하루하루를 짝 채워 보냈던 지난날, 북부동 양산 도서관에 안부를 하고 물금에서의 우리 이야기를 새로 쓰게 되었다

‘우리’는 도서관 직원이다. ‘사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꾸려나간다. 도서관은 걸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인다. 하지만 직원은 필사적으로 업무와 씨름하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도서관 이전 업무’였다.

건물 외관이 완성되자 내부 인테리어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었다. 전체 분위기를 정하는 필름지 색상, 가구, 곳 곳의 사인물 디자인, 소품 등 어느 하나 직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자동화기기는 어떤 것을 살지, 어떻게 공간을 배치할지 등……의논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끝내니 도서관이 아늑해보였다. 그러나 복병이 있었으니, 정리되지 않은 ‘책’이 문제였다. 책 정리를 위해 3주째 아

근을 하니 ‘책’이 보기가 싫어졌다. 그래도 ‘사서’니까 사서는 책을 떼어놓고는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수없이 되뇌며 정리를 계속해갔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D-Day. 모두가 도서관을 많이 기다렸나보다. 9시가 되자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왔다. 솔직한 마음으로 기대보다는 무서웠다. 이렇게 많은 이용자를 본 적이 없었고 고된 업무로 몸과 마음이 지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독여준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도서관을 찾은 어느 이용자의 말 한마디였다.

“도서관이 너무 좋아요! 사서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나보다. 내가 “사서”라고 불리는 것, 직업에 대한 자부심, “고생했다”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여전히 들려오는 “고생했다”는 말은 우리를 힘나게도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다.

이제 도서관이 개관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용자는 여전히 많고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니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우리를 응원해주는 이용자가 있어 힘이 난다. 새 동지에서의 양산도서관, 지속적으로 많은 이들이 찾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기를 바란다.

VOL. 45 도서관 가는 길

공공도서관 경상남도지역협의회 종합소식지 『도서관 가는 길』

통권 제45호 제28권 2호

발행년월 2021년 11월 **발행인** 공공도서관경상남도지역협의회장(경남대표도서관장)

발행처 경남대표도서관 (5113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대표전화** 055)254-4811 / **팩스** 055)254-4819

발행등록번호 76-6481183-00001-09 **편집·인쇄** 핸드디자인

경남지역 공공도서관

지역	도서관명	대표번호	홈페이지
거제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637-6311	http://gjlbg.gne.go.kr/ http://lib.geoje.go.kr
	거제시립수암도서관	639-3891	
	거제시립옥포도서관	639-3881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639-3871	
	거제시립장평도서관	639-3861	
거창	거제시립하청도서관	639-3921	http://library.geochang.go.kr http://gclib.gne.go.kr
	거창군립하청도서관	940-8470	
고성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944-8594	http://gslib.gne.go.kr http://www.goseong.go.kr/gslib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673-8461	
김해	고성동부도서관	670-2916	http://ghlib.gne.go.kr http://ghjlib.gne.go.kr http://jylib.gne.go.kr http://lib.gimhae.go.kr/main.web http://lib.gimhae.go.kr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320-5500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	330-9800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345-1995	
	김해기적의도서관	330-4651	
	울하도서관	340-7161	
	장유도서관	330-7461	
	진영한빛도서관	330-4810	
	칠암도서관	330-4591	
남해	화정글샘도서관	330-2991	http://nhlib.gne.go.kr/ http://www.namhae.go.kr/lib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864-0974	
밀양	남해화전도서관	860-3871	http://mrlib.gne.go.kr http://hnlib.gne.go.kr http://www.myclib.or.kr http://eng.myclib.or.kr/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353-6977	
	경상남도교육청 하남도서관	391-1848	
	밀양시립도서관	359-6036	
사천	밀양시립영어도서관	359-6045	http://salib.gne.go.kr http://scplib.gne.go.kr http://elc.sacheon.go.kr/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853-8401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835-4436	
산청	사천시어린도서관	831-2966	http://sanlib.gne.go.k http://sj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973-2544	
양산	경상남도교육청 산청지리산도서관	974-1611	http://yslib.gne.go.kr http://sblib.yangsan.go.kr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385-7004	
	양산시립상북어린이도서관	392-5936	
	양산시립서창도서관	392-5880	
	양산시립영어도서관	392-5940	
	양산시립웅상도서관	392-5950	
의령	양산시립중앙도서관	392-5900	http://urlib.gne.go.kr http://ljin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572-0941	
진주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761-2721	http://lib.jinju.go.kr
	도동어린이도서관	749-7496	
	비봉어린이도서관	749-7494	
	진주서부도서관	749-5983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749-5984	
	진주연암도서관	749-5982	
창녕	혁신어린이도서관	749-7490	http://njlib.gne.go.kr/ http://cnlib.gne.go.kr http://www.cng.go.kr/ysl.web https://lib.gyeongnam.go.kr http://mslib.gne.go.kr/ http://jhlib.gne.go.kr http://jdlib.gne.go.kr http://cw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526-1490	
창원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532-9501	
	창녕군영산도서관	530-1931	
	경남대표도서관	254-4811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240-4551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	252-3860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271-8144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78-2800	
	고향의불도서관	225-7371	
	내서도서관	225-7481	
	동부도서관	225-7531	
	마산합포도서관	225-7431	
	마산회원도서관	225-7473	
	명곡도서관	225-7326	
	상남도서관	225-7411	
	성산도서관	225-7391	
	의창도서관	225-7331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225-7492	
통영	진해기적의도서관	547-0095	
	진해도서관	225-7511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648-8091	http://tylib.gne.go.kr/ http://www.tongyeonglib.or.kr
	통영시립도서관	650-2630	
	통영시립산양도서관	650-2500	
	통영시립육지도서관	650-4580	
	통영시립충무도서관	650-2640	
하동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884-7995	http://hdlib.gne.go.kr
함안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583-6919	http://hmlib.gne.go.kr http://www.haman.go.kr/chirwonlib.web
	함안군립칠원도서관	580-3647	
함양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963-3186	http://hylib.gne.go.kr
합천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932-0521	http://hclib.gne.go.kr

